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옥수수시세 회복국면

소맥시세는 급등현상

미산 옥수수시세는 회복국면인 반면 태국산 옥수수는
금년도 작황부조와 국내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 상실,
중공산 옥수수는 수출여력 부족현상 나타냄.

미산옥수수 상승세

한동안 급등현상을 보이며
톤당 94~96불까지 치솟던 미
산 옥수수시세가 95불수준에서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4월
23일 현재 미산 옥수수시세는
96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원월도인 9월선적은 99
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산 옥수수시세가 C &
F (톤당) 95불수준에서 조정국
면을 보이고는 있으나, 앞으로
미산 옥수수시세의 대세는 회
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
다.
미산 옥수수시세가 강세를 보

이고 있는 가운데, 태국산 옥
수수는 금년도 작황부조와 국
내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중
공산 옥수수는 수출여력부족으
로 인해 이에 가격오퍼마져 없
는 실정이다.

한편, 금년도 식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산 옥수수의
식부현황을 보면 4월19일까지
7%가 진행되어 지난해의 9%
에 비해 다소 뒤지고 있으나 예
년 평균치인 5%에 비하면 앞
서고 있다. 미국의 주요 콘벨
트지역인 오후이오, 일리노이,
캔서스지역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고, 조지아텍사스, 노오스캐
롤라이나지역은 이미 절반이상
식부를 끝마쳤다.

옥수수보다 먼저 식부작업에
들어간 수수는 4월19일 현재
12%가량 식부를 마쳤고, 이는
지난해의 15%에 비해 다소 뒤
지고 있는 수준이다.

금년도 미산 옥수수의 예상
식부면적은 대략 6,500만 에이
커로 지난해에 비해 22% 감소
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전망
치는 미국의 대폭적인 감산이
있었던 83년이래 가장 낮은 수
준으로, 이 경우 옥수수생산량
은 약 70억부셀 (1억7781만톤)
수준에 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지난해 미국의 옥수수 생
산량은 2억960만톤을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금년도 미산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와 같이 미산 옥수수에 수입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금년에는 회복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
옥수수 사정 악화**

지난 4월13일미농무성이 발표한 86/87년 세계 옥수수생산량은 4억7,730만톤으로 지난 달 전망치인 4억 8030만톤에 비해 0.6% 감소하였고, 지난해의 4억8,190만톤에 비해서는 1% 감소하였다. 국가별 옥수수생산량을 보면 최대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은 4억억 만톤으로 지난 달 전망치와 변동이 없으며, 85/86년도의 2억 2,550만톤에 비하면 7.1%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주요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남아공의 옥수수생산량은 지난 달 추정치에 비해 크게 하향조정되었는데 이들 국가의 옥수수생산은 한발피해로 인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생산량은 1,000만톤으로 지난 달 추정치인 1,100만톤에 비해 9.1% 감소하였고, 지난해의 1,210만톤에 비하면 17.4%가 감소한 셈이다. 또한 남아공은 850만톤으로 지난 달 추정치인 950만톤에 비해 10.5%가 하향조정되었고, 지난해의 810만톤에 비하면 4.9%가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국

교역 현황

미국을 제외한 주요 옥수수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임에 따라 세계 옥수수 교역현황도 지난 달 예상치와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즉 지난해 미산 옥수수와 경쟁을 보였던 아르헨티나, 남아공, 태국, 중공의 수출예상량은 감소할 전망이고, 반면 미국의 수출예상량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아르헨티나의 경우 옥수수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옥수수 수출예상량도 580만톤으로 지난 달의 수출예상량에 비해 14.7% 감소하였고, 지난해 740만톤에 비하면 21.6%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남아공 역시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수출예상량이 200만톤으로 지난 달 예상했던 250만톤 대비 20% 감소하였고, 이는 수출이 크게 부진했던 지난해의 100만톤에 비하면 42.9%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미산옥수수와
경쟁을 보였던
아르헨티나, 남아공,
태국, 중공의
수출예상량은
감소할 전망이고,
반면 미국의
수출예상량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중공의 옥수수 수출예상량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태국은 금년도 수출예상량이 한 미산 대두박과 경합관계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두박시세 역시 미산 대두박 시세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두박과 경합관계에 있는 채종박시세는 금년들어 전반적인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캐나다산이 C&F 톤당 130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인도, 중공산은 85~87불 수준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칠레산은 120불로 280만톤으로 지난 달의 290만톤 대비 3.4% 감소하였고, 지난해의 380만톤에 비하면 26.3% 감소할 전망이다. 중공은 수출예상량이 400만톤으로 지난 달의 500만톤에 비해 20% 감소하였고, 지난해의 640만톤에 비하면 37.5%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타국들의 옥수수 수출예상량이 크게 감소된 반면 미국의 수출예상량은 3,560만톤으로 지난 달의 3,180만톤 대비 11.9% 증가할 전망이고 지난해의 3,150만톤에 비하면 13.0%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가장 큰 옥수수 수입국 중 하나인 소련의 옥수수 수입예상량은 970만톤으로 지난 달의 850만톤 대비 14.1% 증가할 전망이고, 지난해의 1030만톤에 비하면 5.8% 감소할 전망이다.

**대두박
시세동향**

대두시세가 소폭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두박 시세도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반적으로 곡물 및 원료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급상의 변수 말고도 최근 미국 달러화의 약세현상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즉 US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최근 시장참여자들의 실물확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월23일 현재 미산 대두박 시세는 C&F톤당 211.18불로 월

초에 비해 9불가량 상승했다. 또 가격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바라기박 역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산이 C&F톤당 120불, 중국산이 110불 나타내고 있다.

기타

원료시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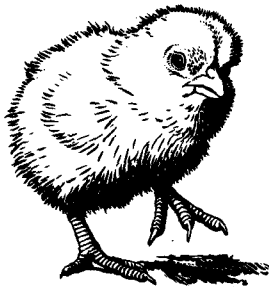
주요 곡물시세가 강세현상을 보이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호밀시세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호밀은 캐나다산이 C&F톤당 85불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EEC산은 78불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호

밀 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수 물량부족으로 일본이 수수대체용으로 호밀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맥시세는 일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 인도네시아산이 C&F톤당 84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스리랑카산은 80불, 아르헨티나산은 79불, 캐나다산 91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수요감소현상으로 인해 GPS시세는 약세를 보여 C&F톤당 48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추는 위탁사육이나 주문사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추사육에서 환기와 온도조절, 예방접종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경성 중추농장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중추만을 주문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동환기시설,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경성 중추농장은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건강하고 균일한 중추를 사육해 드립니다.

경 성 중 추 농 장

- 농장 :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덕이 6 리 123번지
- 전화 : (0344) 63-2605